

# Pascal의 <사랑의 秩序>에 對한 考察

高 元 禧

………目 次………

I. 序 論	IV.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
II. 人間存在의 構造	V. 사랑의 神秘的 共同生命의 秩序
III. 心情의 秩序	VI. 結 論

## I. 序 論

Pascal에 있어서의 사랑의 問題는 그 構造上으로나 本質上으로 解明해야 할 많은 問題 點을 가지고 있다. 構造와 本質은 元來 連關하고 있는 것이어서 抽象的으로 分離할 수 가 없는 것이지만 本稿에서는 前者에 重點을 두고 論述할가 한다.

Pascal에 있어서 生의 理解가 세가지의 秩序 (trois ordres)로 考察될 수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래서 그 세가지 秩序는 主體의 自己否定的 轉換에 의해서 內面的으로 連續되는 것으로 生覺할 수 가 있으나 本稿는 異質的인 사랑의 觀點에서 多少 相異한 區別로 나누어 각 秩序를 各各 內面的 構造와 더불어 特히 그것을 結合하는 內面的 轉換 그 自體의 構造의 解明에 重點을 둘까한다. 이 異質的인 秩序의 連關과 結合의 問題는 단지 Pascal 一個人의 思想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敎 信仰과 회람思潮를 自己의 內的 發展속에 흡수시켜 結實을 본 Augustine의 Caritas思想以來 Thomas의 自然과 越自然의 問題를 頂點으로 하는 中世思想의 全體를 일관하고 있다. 더욱 近代에 들어와서 모든 卓越한 思想家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形態로 채택되고 또한 現代에 있어서의 實存과 社會的 實踐의 連關如何의 問題의 핵심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點에서 유럽思想史 全體의 밑바닥에 그 影響이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Pascal에 있어서의 사랑의 構造의 問題는 깊은 歷史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生覺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思想의 歷史가 如何히 繼續 發展하는가를 人格의 內面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解明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ascal은 그의 全 著作을 通해서 사랑의 問題에 對하여 論述하고 있다. 그의 若干의 作品 가운데서 例를들어 《Discours sur les passions de l'amour》를 위시해서 몇개의 小論《Provinciales》, 《Pensées》등은 오로지 사랑의 問題의 考察에 專念했다고 말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重要한 意味를 가지는 사랑이 어떠한 構造와 內容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것은 極히 複雜한 問題가 內包하고 있고

容易하게 그 全貌와 本質을 把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것은 問題 그 自體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의 思想과 表現間의 關連에도 問題點이 있다.

그는 神學上的 思想을 表現하기 爲해서 傳統的인 Scholar的 概念과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그 思想 그 自體는 實질 近代的인 內容을 가지고 있다. Pascal에 있어서의 構造性은 實質性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이 그 特色이 있다. 따라서 Pascal에 있어서의 生의 世가지 秩序는 人間의 生의 原理가 內面的 轉換의 可能性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極히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Pascal에 있어서의 自己와 他人 그것은 더욱 根源的으로 世상과 敎會의 存在의 二重構造는 生의 秩序의 三重構造로 分離시킬 수가 없도록 結合되어 사랑의 構造의 內面을 構成하고 있다.

人間이 神에게 依支하면서 神을 갈구하는 心情의 秩序와 神이 人間을 찾아 그 마음속에 自己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가 있다. 이 두가지의 秩序가 內面的으로 結合되어 여기에서 사랑의 秩序에 對한 사랑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人間이 神을 神이 人間을 찾는 秩序야말로 《Pensées》의 最大의 問題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Pascal에 對한 사랑이 그 動的인 面에서 展開된다. 原罪에 依해서 놓여진 愆의 秩序에서 사랑의 秩序로 轉換하고 發展한다는 것은 Pensées의 主題이며 人間存在 그 自體의 生의 모습이다. Pascal이 人間을 그 動的인 面에서 把握하고 方法을 重視하는 點도 根本的으로 이와같은 見地에서 오는 것이며 그의 人間分折이나 聖書解釋도 이와같은 見地에서 綜合的으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 Ⅱ. 人間存在의 構造

「Pensées」 166에서 Pasca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Quand on se porte bien, on admire comment on pourrait faire si on était malade; quand on l'est, on prend médecine gaiement: le mal y rèsout: On n'a plus les passions et les désirs de divertissements et de promenades, que la santé donnait, et qui sont incompatible avec les nécessités de la maladie.

La nature donne alors des passions et des désirs conformes à l'état présent. Il n'y a que les craintes que nous nous donnons nous-mêmes, et non pas la nature, qui nous troublent, parce qu'elles joignent à l'état où nous sommes les passions de l'état où nous ne sommes pas.”<sup>1)</sup>

1) Oeuvres Complètes de Pascal; Pensées, (829) Gallimard, 1954, P.1131

이 斷章은 情念의 存在인 人間에게 그 情念이 人間에게 놓여진 狀態에 對해서 相對적이고 더구나 恒常 同一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것을 나타내고 있다. 人間이 利己愛와 傲慢과 虛榮의 情念속에 있는것은 그것을 可能케 하는 狀態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人間은 狀況이 變化하면 情念 그 自體도 變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人間의 存在構造의 分析에 對해서 그 要素가 모두 情念에 의해서 把握되고 있는 것을 考察할 수 가 있다.

왜냐하면 情念이야말로 Pascal에 있어서 人間의 가장 具體적이고 現實적인 存在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철저하게 情念의 存在다. 觀念의 世界는 이와같은 情念의 現實의 上部構造로서 情念에 의해서 規定되며 方向이 정해지고 人間이 탐욕하는 情念을 自由로 展開시키는 場所로서의 意味를 가지는데 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이 人間存在의 存在性을 이루는 情念의 相對性이 明確히 밝혀질때 비로서 거기에 情念轉換의 可能性이 原理적으로 밝혀질 수 가 있다. 그것은 곧 人間으로 하여금 새로운 狀態에 놓여지게 한다.

「죽음」은 이와같은 轉換點으로 把握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죽음이 如何히 人間의 有限性을 表示하더라도 그것만으로 人間에게 根本적으로 情念을 轉換시키는 힘은 없는 것이다. 아무튼 情念의 相對性은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可能性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情念의 相對性에서 誘導해 낼 수 있는 죽음의 意義에도 不拘하고 重要한 問題는 거기에서 時間論이 展開될 수 가 있다는 點이다. 죽음의 問題는 이 時間論과 結合하므로 因해서 그 意義를 보다 明確히 나타낼 수 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人間存在에 關해서 時間의 問題가 Pascal의 思想에 있어서 重要性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이 問題를 明確히 究明한다는 것은 그의 思想을 考察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問題에 對해서 Pascal은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Nous ne nous tenons jamais au temps présent. Nous anticipons l'avenir comme trop lent à venir, comme pour hâter son cours; ou nous rappelons le passé, pour l'arrêter comme trop prompt: si imprudents, que nous errons dans les temps qui ne sont pas nôtres, et ne pensons point au seul qui nous appartient; et si vains, que nous songeons à ceux qui ne sont rien, et échappons sans réflexion le seul qui subsiste. C'est que le présent, d'ordinaire, nous blesse. Nous le cachons à notre vue, parce qu'il nous afflige; et si'il nous est agréable, nous regrettons de le voir échapper. Nous tâchons de le soutenir par l'avenir, et pensons à disposer les choses qui ne sont pas en notre puissance, pour un temps où nous n'avons aucune assurance d'arriver. Que chacun examine ses pensées, il les trouvera toutes occupées au

passé ou à l'avenir. Nous ne pensons presque point au présent; et, si nous y pensons, ce n'est que pour en prendre la lumière pour disposer de l'avenir. Le présent n'est jamais notre fin: le passé et le présent sont nos moyens; le seul avenir est notre fin. Ainsi nous ne vivons jamais, mais nous espérons de vivre; et nous disposant toujours à être heureux, il est inévitable que nous ne le soyons jamais.”<sup>2)</sup>

이 斷章에 있어서 注目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恒常 過去와 將來에 關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現在라는 時點을 志却하려는 傾向이다. 情念의 存在로서의 人間에게는 實로 現實的인 것은 現在뿐인 것이다. 過去와 未來는 모두 觀念的이고 想像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時間은 無制限으로 繼續할 것 처럼 生覺하기 쉽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想像의 날개를 펴서 초조하게 그 實現을 苦待한다. 그러나 그 未來란 決코 確實히 오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臨迫해야 비로서 人間은 永遠히 存續하리라고 空想하던 때가 쏠려 虛無한 일이었고 죽음과 直面하고 있는 現在에 있어서 不完全하고 不滿足한 自己를 依支하고 있는 現在만이 唯一의 實存하는 時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죽음은 空想의 흐름을 切斷하고 不斷히 人間의 存在 그 自體를 威脅한다. 人間은 時間의 흐름을 追求해서 自己를 完成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죽음이 萬事의 끝이 아니다. 죽음의 彼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人間은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죽음은 時間의 終末보다는 人間이 觀念적으로 處理할 수 없는 實在的 時間, Pascal이 말하는 永遠은 죽음을 媒介로 해서 닥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이 恣意的으로 想像하기 쉬운 時間의 終末에 지나지 않는다. 宇宙의 無限大的 實在的 空間이 想像力의 構造가 되는 空間을 自己속으로 흡수하며 人間에게 直面할 때 人間은 自己의 無力함을 自覺하게 된다. 永遠은 죽음에 대한 想像的 時間을 切斷하고 人間에게 닥아오는 것이다. 現在가 唯一의 存在하는 時間이라고 깨닫는 것은 不斷히 죽음을 自覺할 수 밖에 없다. 人間은 죽음에 의해서 아주 孤獨하다.

“Mort soudaine seule à craindre”<sup>3)</sup>

“On mourra seul”<sup>4)</sup>

여기에 對해서는 그 어느누구도 그를 評價할 수는 없다. 空間속에 唯一點 現在の 瞬間, 人間關係에서 벗어난 唯一한 自己自身—이것이 죽음이며 現實이다. 죽음은 不斷히 닥아오고 더구나 確實히 찾아오기 때문에 現實의 自己 時間과 空間속에 唯一한 한 點을 차지하는 孤獨한 모습 이것이 바로 現實인 것이다. 스스로 自立的 存在라고 自負하는 人間이 죽음의 ちら에 임할 때 처음으로 孤獨한 自己 스스로의 모습을 發見하게 된다. 이와같은 人間의 存在를 Pasca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Ibid, 168, P. 1131

3) Ibid., 222, P. 1148

4) Ibid., 351, P. 1181

“Quand je considère la petite durée de ma vie, absorbée dans l'éternité précédente et suivante, le petit espace que je remplis, et même que je vois, abîmé dans l'infinie immensité des espaces que j'ignore et qui m'ignorent, je m'effraie et m'étonne de me voir ici plutôt que là, car il n'y a point de raison pourquoi ici plutôt que là, pourquoi à présent plutôt que lars. Qui m'y a mis? Par l'ordre et la conduite de qui ce lieu et ce temps a-t-il été destiné à moi?”<sup>5)</sup>

自我는 여기에서 危機에 봉착한다. 어디까지나 自己의 觀念化를 추진해서 結局 死滅의 궁지에서 轉換할 것인가? 혹은 自己를 依支하는 他人의 探求에 方向을 轉換할 것인가? 그러나 本來의 自我는 自己의 方向을 轉換하지 못한다. 더구나 時間은 단지 未來의 所望으로서 主體的으로 成立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不斷히 客觀的으로 運動하면서 人間을 떠나려 가게 한다. 人間은 時間속에 흘러가면서 무엇인가를 營爲하고 自己를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 時間은 人間을 기다리지 않는다. 自然속에 있는 人間은 宇宙속에 한 點을 確保하려고 할때 自己의 한 點은 無限히 分裂하며 人間의 把握을 離脫한다. 그래서 人間現實 그 自體로서의 現在의 瞬間도 無限히 또한 不斷히 流動하며 一刻도 停止하는 경우가 없다. 實在있는 唯一한 時間인 現在는 이와같이 시시각각으로 自己를 崩壞하게 하는 內面的인 流轉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現在에 있는것은 모두가 崩壞하기 마련이다. .

“Le sentiment de la fausseté des plaisirs présents et l'ignorance de la vanité des plaisirs absents causent l'inconstance.”<sup>6)</sup>

이와같은 不安全(inconstance)은 人間存在 그 自體의 構造와 現實에서 일어남에도 不拘하고 人間은 이러한 不安全을 야기시키는 作用 그 自體를 解決하려고 한다. 人間이 여러가지 方法으로 善을 實現하려고 하는것은 그러한 試圖에 基因한다. Montaigne는 人間의 現實의 悲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悲慘속에서 安住하고 말았다. 다시말해서 Montaigne가 말하는 悲慘은 悲慘을 悲慘으로서 生覺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觀念化된 悲慘이라고 Pascal은 主張하고 있다. Pascal은 이와같은 事態를 Pensées속에서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말하고 있다.

“S'il y quelque chose où son intérêt propre ait dû la faire appliquer de son plus sérieux, c'est à la recherche de son souverain bien……/ L'un dit que le souverain bien est en la vertu, l'autre le met en la volupté; l'un à suivre la nature, l'autre en la vérité;……/……/ si faut-il voir si cette belle philosophie n'a rien acquis de certain par un travail si long et si tendu, peut-être qu'au

5) Ibid., 88, P. 1112-1113

6) Ibid., 170, P. 1132

moins l'âme se connaîtra soi-même. ……/……/ cela suffirait sans doute si la raison était raisonnable. Elle l'est bien assez pour avouer qu'elle n'a pu encore trouver rien de ferme; mais elle ne désespère pas encore d'y arriver; au contraire, elle est aussi ardente que jamais dans cette recherche, et s'assure d'avoir en soi les forces nécessaires pour cette conquête. Il faut donc l'achever, et, après avoir examiné ses puissances dans leurs effets, reconnaissons-les en elles-mêmes; voyons si elle a quelques formes et quelques prises capables de saisir la vérité. ” 7)

이와같은 경우 理性이라는 用語가 使用되고 있지만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事物의 眞實相을 있는 그대로 認識하는 理性的인 理性이 아니라 그것은 時間의 形成에 의해서 運動하는 相對的 情念에 支配된 理性인 것이다. 以上이 世上에 存在하는 人間의 存在性인 情念의 被覆性, 有限性, 相對性, 時間性에 對해서 論述했으나 아무튼 情念이란 人間의 이와같은 性格을 不斷히 폭로하는 죽임에 대하여 피할려고 하는 方向을 恒常 가지고 있다. Pascal은 이와같은 方向을 가지는 人間의 態度를 一括해서 慰戲 (divertissement) 라고 부르고 있다.

“Sans examiner toutes les occupations particuliers, il suffit de les comprendre sous le divertissement” 8)

自然的인 人間의 活動은 모두 慰戲라고 하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

<se divertir>는 人間의 悲慘이며 死滅하고 말 現實에서 思考를 避하고 다른 方向에 關心을 가지고 自己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人間存在의 方法은 죽임이란 必然的인 것이기 때문에 慰戲가 必然的인 것이 된다.

“Les hommes n'ayant pu guérir la mort, la misère, l'ignorance, ils se sont avisés, pour se rendre heureux, de n'y point penser. ” 9)

이와같은 慰戲의 分析에 의해서 人間存在의 構造가 端的으로 밝혀질 뿐만 아니라 보다 高次元의 存在性을 지적하고 있다. Pascal은 이와같은 人間存在를 언제나 實存的으로 考察하고 있다.

이것은 人間을 自然科學의으로 取扱하려는 近代 合理主義의 態度와는 거리가 멀다.

“Or à quoi pense le monde? Jamais à cela; mais à danser, à jouer du luth, à chanter, à faire des vers, à courir la bague, etc, à se battre, à se faire roi, sans penser à ce que c'est qu'être roi, et qu'être homme” 10)

7) Ibid., 189., P. 1135—1136

8) Ibid., 204, P. 1138

9) Ibid., 213 P. 1147

10) Ibid., 210, P. 1146

이처럼 人間은 自己의 運命에 對해서 思考하기를 회피한다. 하지만 人間은 眞實로 참된 마음의 安息과 참된 完成을 바라고 있다.

“Ils s’imaginent que, s’ils avaient obtenu cette charge, ils se reposeraient ensuite avec plaisir, et ne sentent pas la nature insatiable de leur cupidité. Ils croient chercher sincèrement le repos, et ne cherchent en effet que l’agitation.”<sup>11)</sup>

여기에서 想像과 直感 등의 用語의 意義에 對해서 充分히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完成과 安息을 追求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本能 (instinct) 이 問題가 된다. 이것은 勿論 生物學的의 意味에 있어서의 本能은 아니다. 이 本能에 對해서 Pascal은 다음과 같이 生覺하고 있다.

“Ils ont un instinct secret qui les porte à chercher le divertissement et l’occupation au dehors, qui vient du ressentiment de leurs misères continues; et ils ont un autre instinct, secret qui reste de la grandeur de notre première nature, qui leur fait connaître que le bonheur n’est en effet que dans le repos, et non pas dans le tumulte; et de ces deux instincts contraires, il se forme en eux un project confus, qui se cache à leur vue dans le fond de leur âme, qui les porte à tendre au repos par l’agitation, et à se figurer toujours que la satisfaction qu’ils n’ont point leur arrivera, si, en surmontant quelques difficultés qu’ils envisagent, ils peuvent s’ouvrir par là la porte au repos.”<sup>12)</sup>

그들은 內面的인 本能에 따라 마음의 動搖를 外部에서 찾아 內面的으로 滿足할려는 것이다. Pascal이 Montaigne를 批評하여 克服한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人間이 自己의 悲慘을 自覺하는 것도 이 本能에 의해서 비로서 可能한 것이다. 또한 이 本能은 人間存在의 運動을 일으키게 하는 原理로서 人間이 究極에 있어서 自己存在이 究極的인 原理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問題를 올바르게 理解하기 爲해서는 本能을 分析 考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 默戲의 올바른 構造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偉大한 本能(instinct de grandeur)이란 正確히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이 本能의 낱말에 對해서 生物學的인 理解를 如何한 意味에 있어서도 拒否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욱 이 낱말은 本能的 能力 다시 말해서 古典的 哲學에 있어서 魂의 諸能力, 意志, 理性, 情念 같은것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것은 人間이 本性的으로 가지는 觀念이나 魂의 能力이 그것을 基礎로해서 活動하게 되는 實質的인 諸觀念, 例를들어 Descartes의 自然學에서 單純本質, 매로는 그의 形而學에서《Cogito, ergo sum》

11) Ibid., 205, P. 1141

12) Ibid., 205, P. 1141

과 같은 第一原理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Pasca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Que l’homme maintenant s’estime son prix.

Qu’ il s’aime, car il y a en lui une nature capable de bien; mais qu’il n’aime pas pour cela les bassesses qui y sont. Qu’il se méprise, parce que cette capacité est vide; mais qu’il ne méprise pas pour cela cette capacité naturelle. Qu’il se haïsse, qu’il s’aime: il a en lui la capacité de connaître la vérité et d’être heureux; mais il n’a point de vérité, ou constante, ou satisfaisante. Je voudrais donc porter l’homme à désirer d’en trouver, à être prêt, et dégagé des passions, pour la suivre où il la trouvera, sachant combien sa connaissance s’est obscurcie par les passions. Je voudrais bien qu’il haït en soi la concupiscence qui le détermine d’elle-même, afin qu’elle ne l’aveuglât point pour faire son choix, et qu’elle ne l’arrêtât point quand il aura choisi.”<sup>13)</sup>

이 斷章속에 있는 「善의 可能的 本能」, 또는 「本性的 可能性」이라고 하는것은 偉大한 本能을 意味하고 있다. 그래서 偉大한 本能은 實質的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偉大한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斷章에서 「本性」 또는 「本性的」인 眞實함을 誤解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 경우 「이 本性的 可能性을 경멸해서는 안된다」 든가 또는 「自己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表現은 逆說的인 表現으로서 本性이 空虛하다든가 自己는 증오해야 한다는 것을 自覺한다는 것이 모두가 同一한 內容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지 悲慘이 곧 偉大하다는것이 아니다. 좀 다른 觀點으로 考察해 보면 人間存在은 自己와 他人과의 關係속에서 成立되며 그것이 觀念的인 評價關係를 媒介로해서 他人으로 하여금 自己를 사랑해 주도록 하는 主體의 自己中心的인 사랑의 關係를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評價關係가 Pascal의 人間觀의 中心이 되고 있는것은 추호도 變함이 없을 것이다. 偉大한 것이란 元來가 評價關係에 의해서 規定되는 것이고 他人에게 評價되어야 비로서 偉大한 것이 成立된다. 換言하면 偉大한 것은 他人과의 關係 그 自體이기 때문에 本性的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原理가 될 수 없다. Pascal은 回心の 記錄 「mémorial」에서 神을 깨달은 魂에 對해서 「人間의 魂의 偉大性」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것은 人間의 魂의 可能性 卽 偉大한 神을 받아드린 狀態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本能의 本質에 關해서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意志와의 關係다. 이 點에 對해서 Pascal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Il n’est pas honteux à l’homme de succomber sous la douleur, et il lui est honteux de succomber sous le plaisir. Ce qui ne vient pas de ce que la

13) Ibid., 331, P. 1170

douleur nous vient d'ailleurs, et que nous recherchons le plaisir, car on peut rechercher la douleur, et y succomber à dessein, sans ce genre de bassesse. D'où vient donc qu'il est glorieux à la raison de succomber sous l'effort de la douleur, et qu'il lui est honteux de succomber sous l'effort du plaisir? C'est que ce n'est pas la douleur qui nous tente et nous attire; c'est nous-mêmes qui volontairement la choisissons et voulons la faire dominer sur nous, de sorte que nous sommes maîtres de la chose; et en cela c'est l'homme qui succombe à soi-même, mais dans le plaisir, c'est l'homme qui succombe au plaisir. Or il n'y a que la maîtrise et l'empire qui fasse la gloire, et que la servitude qui fasse la honte. ” 14)

Pascal은 人間의 意慾을 意志(volonté)와 恣意(gré)로 區別하고 있다. 意志는 탐욕에 저항하여 苦痛을 스스로 感受하는 움직임이고 恣意는 탐욕에 끌려서 快樂에 이르는 意慾이다. 意志는 理性이 自覺的 또는 內面的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偉大性은 本質的으로 意志에 關係된다. 그것은 참된 自由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理性은 人間으로 하여금 自己의 悲慘에 直面하게 한다. 그것은 空虛한 自己의 眞相인 것이다. 意志는 人間에게 實로 마땅히 있어야 할 態度이고 그렇다고 무엇인가 價値를 만들어 내는 能力은 아니다. 여기에서 Pascal은 意志도 恣意도 人間存在에 있어서 自立的인 能力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 論한바와 같이 偉大한 本能은 他人의 評價에 의해서 自己의 偉大性을 構成하려고 하는 人間의 可能性이었다. 그러나 그 可能性을 所有한 人間은 그것을 充足하기 爲해서 恒常 무엇인가를 追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可能性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人間은 滿足을 취할때가 없다. 人間은 어떠한 일을 하고나면 即時 倦怠(ennui) 感을 느낀다.

“On cherche le repos en combattant quelques obstacles; et si on les a surmontés, le repos devient insupportable, car, ou l'on pense aux misères qu'on a, ou à celles qui nous menacent. Et quand on se verrait même assez à l'abri de toutes parts, l'ennui, de son autorité privée, ne laisserait pas de sortir du fond du coeur, où il a des racines naturelles, et de remplir l'esprit de son venin. ” 15)

그러나 이 倦怠는 단지 自己 一個人에 關한 것이 아니라 人間앞에 自己를 充分히 誇張할 수 없는데 關한 倦怠인 것이다. 人間은 이러한 倦怠를 解消하기 爲해서 遊戲에 빠지고 學問에 沒頭하며 冒險을 試圖하다가 마침내는 自殺길에 빠지지도 한다. 모든 人間앞에 自

14) Ibid., 267, P.1157

15) Ibid., 205, P.1142

己의 價値를 認識시키게 하는 手段인 것이다. 이처럼 人間은 좀차로 自己破滅을 向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遊戲에 關한 Pascal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다.

“L’homme, quelque plein de tristesse qu’il soit, si on peut gagner sur lui de le faire entrer en quelque divertissement, le voilà heureux pendant ce temps-là; et l’homme, quelque heureux qu’il soit, s’il n’est diverti et occupé par quelque passion ou quelque amusement qui empêche l’ennui de se répandre, sera bientôt chagrin et malheureux. Sans divertissement il n’y a point de joie, avec le divertissement il n’y a point de tristesse.”<sup>16)</sup>

人間은 如何히 世上에서 人間關係의 交流를 하더라도 自己를 評價한다는것은 쓸모없는 일인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他人으로 하여금 自己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自立性을 保存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人間들에게 떨어져 나가는 唯一한 人間이며 自己의 悲慘속에서 죽어가는 存在다. 이 本質的으로 孤獨한 人間은 그 自體의 힘에 의해서 人間條件의 모순에서 脫皮할 수 없는 事實을 알게된다. 왜냐하면 人間은 그 自體가 空虛이며 그래도 自己自身을 찾으려고 하는 存在者이기 때문에 그것을 發展시키는 힘은 外部의 부름에 依해서 覺醒하는일 그 以外는 없다. 여기에서 Pascal의 사랑의 體系에 대한 非體系性, 非連續性이 있다.

Pascal은 이와같은 意味를 人間關係에서 人間存在의 發展으로 生覺했다. 그 根源에는 人間을 부르는 神의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生覺되고 그리스도를 中心으로 하는 이와같은 의미의 交流가 「教會」로서 生覺할 수 있다. 人間은 「世上」과 「教會」라고 하는 두가지의 對立된 共同體의 이느 하나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兩者는 서로 對立하면서도 그 構造에 있어서 類型的이다. 結論的으로 人間은 價値있는 存在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不可能한 事實을 論해왔다. 다시말하면 自己의 存在 그 自體가 價値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價値를 存在할 수 있게 하는 觀念論的 方向과는 反對方向을 가진다. 人間은 他人으로 하여금 自己를 認識해 줌으로서 自己의 充足을 試圖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關係는 本質的으로 自己追求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憎惡과 孤獨에 不過한 것을 論述했다. 탐욕이 사랑으로 轉換할때 이와같은 構造는 實質的으로 그 本來의 內容에 의해서 充實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宗教的으로 말하면 人間은 元來 사랑의 共同을 爲해 創造된 生命體이기 때문이다. 즉 人間은 하나에서 無限을 向해 創造된 存在者이기 때문이다.

16) Ibid , 205, P. 1143

## Ⅱ. 心情的 秩序

Pascal에 있어서 사랑의 發展이 各人의 內面的인 깊은 考察에 의한것이 아니라 外部로부터 사랑의 부름에 응하므로써, 始作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음미해 볼만한 問題라고 生覺된다. 만약 神이 存在한다고 하면 반드시 特定の 要求를 가질것은 勿論 그것은 各人의 恣意的으로 自己를 深化함으로써가 아니고 神의 부름을 듣는데서 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外部로부터의 要求에 응해서 비로서 自己의 深化는 規律되고 發展되기 때문이다.

Pascal의 內面的 自覺은 Descartes와는 本質적으로 相異하다. 이와같은 重大한 問題에 無關心한 人間들에게 對해서는 “가로친다” 고 하는 態度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Pascal은 力說하고 있다 그 가르치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

“Qu'ils apprennent au moins qu'elle est la religion qu'ils combattent, avant que de la combattre. Si cette religion se vantait d'avoir une vue claire de Dieu et de le posséder à découvert et sans voile, ce serait la combattre que de dire qu'on ne voit rien dans le monde qui le montre avec cette évidence. Mais puisqu'elle dit au contraire que les hommes sont dans les ténèbres et dans l'éloignement de Dieu, qu'il s'est caché à leur connaissance que c'est même le nom qu'il se donne dans les Écritures, Deus absconditus [Is. XLV, 15], et enfin, si elle travaille également à établir ces deux choses : que Dieu a établi des marques sensibles dans l'Église pour se faire reconnaître à ceux qui le chercheraient sincèrement, et qu'il les a couvertes néanmoins de telle sorte qu'il ne sera aperçu que de ceux qui le cherchent de tout leur cœur, .....<sup>17)</sup>

이 가르치는 內容은 極히 重要하다. 다시말해서 神은 教會를 통해서 人間에게 說教하고 있다. 教會는 利己愛를 떠나서 神의 意志에 좇아 神과 人間을 眞實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共同體이다. 教會를 통해서만이 神은 特定の 方法으로 人間을 가르칠려고 하고 있다. 神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神의 말씀을 尊重하게 聽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서 自己深化가 시작된다 그래서 神은 소위 숨어있는 神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 意味는 神이 神 自體가 規定한 方法에 의해서만이 認識할 수 있다는것을 나타낸다. 그 意味를 Pascal은 神의 말씀이라고 하는 聖書의 解釋의 問題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 Ibid., 335, P. 1172

“le rich parle bien des richesses, le roi parle froidement d'un grand don qu'il vient de faire, et Dieu parle bien de Dieu.”<sup>18)</sup>

神이 숨어있다는 것은 端的으로 숨어있는것이 아니라 사랑의 主로써 相應하려고 自己를 啓示하고 있는 것이다. 숨어있다는것은 眞實로 나타나 있는것과 아주 同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心情을 기울려 神을 찾으려고 하는 者는 神을 容易하게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關한 Pascal의 意見을 또하나 引用해 보면: “Il est juste qu'un Dieu si pur ne se découvre qu'à ceux dont le coeur est purifié,” ……<sup>19)</sup>

“……il est vrai tout ensemble qu'il se cache à ceux qui le tentent, et qu'il se découvre à ceux qui le cherchent, parce que les hommes sont tout ensemble indignes de Dieu, et capables de Dieu: indignes par leur corruption, capables par leur première nature.”<sup>20)</sup>

神은 人間存在의 構造를 올바르게 構成하려고 하는 方法으로 自己를 나타내게 한다. 이와같이 神은 自己가 意志하는 方法만으로 自身을 啓示케 한다는 것은 人間이 神을 찾는 態度를 決定하게 한다. 즉 참된 神에 對한 갈구는 사랑이며 服從이 아니면 안된다고 力說하면서 Pasca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ils refusent de le chercher ou de le suivre.”<sup>21)</sup>

神의 倫理的 服從關係와 快樂의 原則을 結合하는 열쇠는 죽음의 問題라는 것을 Pascal은 強調하고 있다. Pascal에 따르면 敎會가 지시하는것 처럼 神을 갈구한다면 神은 반드시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神의 實在를 깨달수 없는것은 敎會가 가르치는것 처럼 心情을 기울려 神의 意志에 쫓아 神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心情을 기울려 努力하는 것은 단지 理論的인 問題가 아니고 또한 幾何學의 問題를 證明하는것 처럼 人間을 必然的으로 納得시킬 수 있는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에 있어서의 自由가 存在하는 것이다. 이 問題에 關聯된 斷章233을 살펴보면 이 斷章의 根本精神은 「有限은 無限앞에 消滅된다.」라는 句節로서 이 基礎위에 人間에게 참된 自覺과 實踐을 가르칠려고 하고 있다. 神의 存在에서 神의 本質에 이르는 過程 다시 말해서 그 反對現象이 아니라는 것을 Pascal은 力說하고 있다. 이것은 Descartes가 神의 存在證明이 本質을 앞세우는 本體論的 證明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경우와는 對照的이다. 神의 本質은 存在하는 神의 啓示에 의해서 비로서 認識되는 것이며 앞서 神의 本質을 前提한다면지 거기에서 그 存在를 證明하려고 하는 觀念論的 方向을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思考는 Pascal의 人間存在

18) Ibid., 743, P. 1316-1317

19) Ibid., 600, P. 1278

20) Ibid., 603, P. 1282

21) Ibid., 647, P. 1293

의 理解에 關한 問題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있다.

“L’unité jointe à l’infini ne l’augmente de rien, non plus qu’un pied à une mesure infinie. Le fini s’anéantit en présence de l’infini, et devient un pur néant. Ainsi notre esprit devant Dieu;……/……/ nous connaissons qu’il y a un infini, et ignorons sa nature. Comme nous savons qu’il est faux que les nombres soient finis, donc il est vrai qu’il y a un infini en nombre. Mais nous ne savons ce qu’il est: il est faux qu’il soit pair, il est faux qu’il soit impair, car, en ajoutant l’unité, il ne change point de nature, cependant c’est un nombre, et tout nombre est pair ou impair (il est vrai que cela s’entend de tout nombre fini). Ainsi, on peut bien connaître qu’il y a un Dieu sans savoir ce qu’il est.”<sup>22)</sup>

여기에서 數論의 比例를 가지고 말해지고 있지만 問題는 단지 理性만 가지고서는 神에 對해서 認識不可能하다고 말하면서 Pascal은 이 問題에 對해서 自己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表現하고 있다.

“Incompréhensible que Dieu soit, et incompréhensible qu’il ne soit pas;”<sup>23)</sup>

“Nous ne connaissons ni l’existence ni la nature de Dieu, parce qu’il n’a ni étendue ni bornes. Mais par la foi nous connaissons son existence; par la gloire nous connaissons sa nature. Or, j’ai déjà montré qu’on peut bien connaître l’existence d’une chose sans connaître sa nature.”<sup>24)</sup>

여기에서 Pascal은 信仰에 의해서 모든 理論的 認識에 依存하지말고 神의 實在를 認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神의 意志로 나타낸 말씀에 순종함으로 因해서 實現될 수 가 있다. 즉 敎會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自己의 理性에 의해서 判斷되는 魂은 그대로 그 말을 믿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Pascal은 「賭」의 問題를 論하면서 理性的으로 解決 不可能하다는 것을 立證하여 信仰으로서의 意志의 決斷에 正當한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理性을 納得시키기 爲해 快樂의 原則이 使用되는 것이다. 卽 意志의 決斷에의 過程으로서 快樂의 原則이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手段은 아니다.

神에 의한 生은 祝福이기 때문에 內容의으로도 올바른 것이다. 賭의 結果는 神의 有無는 如何든간에 神이 存在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보는것이 理性的인 行爲이고 또한 그러한 내기를 걸어본다는 것은 죽음이 實在의으로 닥아오는 人間生命에게는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않은 경우는 그 自體가 一方的으로 내기를 하는 셈이된다. 그리고

22) Ibid., 451, P. 1212

23) Ibid., 447, P. 1211

24) Ibid., 451, P. 1213

더욱 이러한 賭博은 聖書와 敎會의 證言이 있기前에 죽음에 압박해서 行해지는 것으로 결코 막연히 恣意的으로 狀態을 考慮해서 내기를 거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神의 存在하는 側에 내기를 걸어보는 것은 敎會가 探求하는 길에 쫓아서 神의 探求에 參與하는거와 같은 意味로서 결코 소위 神의 存在의 理論的인 證明은 아니다. 그것은 敎會와 聖書에서 神을 探求하고자 하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Mais encore n’y a-t-il point moyen de voir le dessous du jeu?—Oui: l’écriture, et le reste, etc.”<sup>25)</sup>

이 句節은 그와 같은 意味를 잘 表現하고 있다고 生覺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참된 信仰은 아니다. 참된 信仰에 이르는 過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敎會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것은 敎會라고하는 共同體의 探求에 따라 自己를 새롭게 形成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習慣이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登場한다. 人間이 意慾에 따라 生活한다는 것은 慾의 原理에 따라 自己를 形成해 나가는것을 意味한다. 意志도 理性도 情念도 이 原理에 의해서 方向을 짓게 되는 것이다. Pascal은 斷章451 (233) 에서 「너희 信仰의 無力은……너의 情念에서 온다」라고 말한다. 習慣에 의해서 情念이 새롭게 形成될때 스스로 信仰은 自由롭게 이루어 질 것이다. 情念은 相對的인 것으로 그때의 狀況에 따라 새롭게 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은 이미 論述한 바와 같다. 다시말해서 人間은 習慣의으로 形成되는 것으로 敎會의 規律이 스스로 人間을 改造하게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새로운 關係에 의해서 情念의 運動이 形成되어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敎會의 探求에 따라 神의 探求에 參與한 自己는 自己속에 낡은 原理와 낡은 情念과의 치열한 싸움을 展開해야 한다. 그것이 決定的인 回心直前의 Pascal의 現實이었다. 이처럼 시작된 探求는 아직 人間的인 原理를 아주 除去한것은 아니다. 아직 神과 더불어 사는 참된 信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渴求하는 秩序야 말로 心情의 秩序인 것이다. 그것은 敎會로부터의 부름에도 不拘하고 아직 自己의 內在的인 苦鬪에서 몸부림치는 過程에 놓여있는 것이다. 神에 의한 確實性을 얻기에는, 다시 말해서 神과 더불어 存在하는 領域에 到達하기에는 「回心」이라고 하는 一大飛躍을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라고 불리운다. 近代의 初頭에 있어서 自然의 새로운 發見은 中世의 思惟에서 近代의 自覺에 의한 精神的 轉換의 重要한 契機가 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自然의 發見은 그위에 自然의 科學的 研究를 促進시켰다. 여기에서 近代的인 自然觀의 重要한 特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들은 近代의 自然研究의 精神을 Descartes에 의해서 鮮明하게 考察할 수가 있다.

그의 自然研究는 多分 觀念的인 方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方法을 움직이게 한 自覺의 精神은 바로 近代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方法은 明晰整然한 單純觀念의

25) Ibid, 451, P. 1215

立證的인 直觀과 거기에서 오는 必然的 演繹方法을 취하지만 보다 더 形而上學의 基礎를 精神의 自己直觀위에 올려놓고 思考하는 精神과 延長으로서의 物體를 實體的으로 嚴密히 區別하고 있다. 自主的인 精神과 機械的인 方法에 따라 運動하는 自然을 方法的으로 엄밀히 認識하여 그 認識을 媒介로 해서 自然과 人間을 規律支配한다는 點 또한 人間の 本性에 밑바침이 되는 自己充足의 生活 다시말해서 自己의 理性和 意志와 情念의 完全한 開發과 自己規律를 內容으로 하는 自然的인 福祉를 實現하려고 했다. 그러나 Pascal은 이와같은 Descartes의 學說에 對해서 Pensées 72, 76, 77, 79등을 통하여 批判을 加하고 있다. Pascal은 Pensées 77(19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e ne puis pardonner à Descartes: il aurait bien voulu, dans toute sa philosophie, pouvoir se passer de Dieu;...”<sup>26)</sup>

自己規律를 媒介로 해서 自然을 支配하는 人間, 우리들은 Descartes의 理想을 그의 方法敍說《Discours de la méthode》을 통해서 充分히 考察할 수가 있다. Descartes는 人間の 理性에 커다란 信賴를 하고 그 對象이 되는 自然全體(觀念化된 自然)는 人間の 自覺的인 生의 內容으로 包含하기에 이르렀다. Pascal에 있어서는 過然 物體는 完全히 精神性を 拂拭한 存在로서 生覺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은 一面 自然을 그 思考에 의해서 理解하지만 本質的으로 自然속에 놓여져 하나의 點처럼 理解되는 他의 一面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現實에 對한 自然과 人間の 關係인 것이다. 여기에 對해서 Pascal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Ce n'est point de l'espace que je dois chercher ma dignité, mais C'est du règlement de ma pensée. Je n'aurais pas davantage en possédant des terres. Par l'espace, l'univers me comprend et m'engloutit comme un point; par la pensée, je le comprends.”<sup>27)</sup>

이 自然 對 人間の 問題에 對해서 Pascal에 의한 思考는 無限을 無限으로서 認定하고 그 無限안에 놓여진 人間の 無와 同一하다는 것을 表明하고 있다. 人間은 無限大한 宇宙속에 단지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存在하는 것을 自覺하는 存在다. 그렇다고 그것은 人間을 無限大한 自然以上の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自然속에 놓여진 微少한 한 點으로 自己를 自覺하고 位置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Pensées <265>에서 「思考에 의해서 나는 宇宙를 理解한다.」라고 할때 그것은 Descartes式으로 自然을 支配한다고 生覺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自己가 이 無限한 自然속에서 한 點에 不遇한 存在로써 自覺하는 意味로서 生覺하여야 할 것이다.

人間の 想像力이 追求하는데 따라 때로는 無限히 擴大시키고 또한 때로는 無限히 縮小

26) Ibid., 194, P.1137

27) Ibid., 265, P.1157

시키는人間은 두가지 方向에 超越하는 自然을 神의 全能의 象徴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 人間의 時間을 無로 돌리고 永遠을 비밀속에 감싸이게 하는것 처럼 宇宙는 그 全體性과 原理를 人間에게 隱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關係는 心身 結合體인 情念의 存在로서의 人間에게 더욱 顯著하다. 情念이란 어휘상 受動을 意味하지만 그 情念에 있어서의 受動性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機械的인 受動性은 아니다. 自然 對 人間의 關係에 있어서 人間은 二重의 無限속에서 自然에 包容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人間은 思考에 의해서 自己를 自然속에서 自覺적으로 그 眞實된 位置에 位置할 수가 있다. 機械的인 受動性은 精神的 活動의 媒介가 되고 自覺의 要素가 되는것에 不過하다. Pascal에 있어서의 情念은 他의 主體의 存在에 對한 主體의 受動性을 意味하고 있다. 勿論 Pascal은 自然속에 놓여진 主體의 情念性을 다음과 같이 生覺하고 있다.

“Quand je considère la petite durée de ma vie, absorbée dans l'éternité précédente et suivante le petit espace que je remplis, et même que je vois, abîmé dans l'infini immensité des espaces que j'ignore et qui m'ignorent, je m'effraie et m'étonne de me voir ici plutôt que là, car il n'y a point de raison pourquoi ici plutôt que là, pourquoi à présent plutôt que lors. Qui m'y a mis? Par l'ordre et la conduite de qui ce lieu et ce temps a-t-il été destiné à moi? Memoria hospitis unius diei praetereuntis.”<sup>28)</sup>

“Le silence éternel de ces espaces infinis m'effraie.”<sup>29)</sup>

恐怖, 驚愕등의 情念은 確實히 他人에 對한 自己의 立脚地의 崩壞를 意味하고 있다. 이 경우 自己의 이와같은 情念을 일으키게 하는 他人은 단지 自己外在性으로서의 自然은 아니다.

Pascal은 確實히 自己를 이 大自然속에 位置하게 한 者에 對해서 情念을 품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自然을 神의 象徴으로 여기고 거기에 對해서 情念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恐怖 驚愕은 Descartes가 理解한것 처럼 自己의 善을 求하고 惡을 避하려는 衝動에 基礎를 두는것 보다 더욱 깊이 實在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Descartes의 情念, 精神에 의해서 規律되어야 할 情念보다는 Pascal의 理性, 人間의 眞實相을 直視하려는 直觀에 통하는 것이고 그것은 存在의 意味를 探求하게 하고 또한 모든 精神的 活動을 일으키는 原動力이 될 根源的 實存感情이며 情念과 理性과 意志로 하여금 그 方向과 意味를 提示하게 한다. 그것은 究極에 있어서 神과의 交流속에 놓여진 自己의 意味의 探求이며 깊은 사랑의 要求인 것이다. 여기에서 心情秩序의 體系가 形成되어 가는것이다.

28) Ibid., 88, P. 1112—1113

29) Ibid., 91, P. 1113

#### IV.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

心情的 秩序는 實在者에 對해서 그것을 믿으며 摸索하는 한 段階였다. 그러나 이 節은 神을 發見하는 秩序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具體的인 人格과의 交流에 의해서 現實에 일어나는 事實이 이 節의 中心問題인 것이다.

Pascal은 回心에 關해서 깊은 體驗을 가지고 있다. 西紀1654年 11月 23日 深夜의 體驗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그의 回心에 關해서 貴重한 記錄《Mémoires》를 남기고 있다. 이제 이 記錄을 考察해 봄으로서 이 秩序의 轉換이 어떻게 해서 行해졌는가를 밝혀 볼까한다.

Pascal이 回心에서 體驗한 神은 突然 새로운것이 Pascal의 魂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Pascal이 教會에 의해서 神에 對하여 가르침을 받은것이 그의 魂의 現實이 된 것이다. 이 回心の 內容과 構造를 考察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의 意味를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Mémoires》 冒頭에 「火焰」이라는 言葉이 나오는데 이것은 具體的인 불꽃을 보았다고 解釋해도 좋으나 神의 恩寵의 불꽃이 그의 영혼에 照明했던 것으로 生覺해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 불꽃에 비쳐진 그는 처음으로 教會의 가르침의 眞實을 理解하기에 이른다. Pascal은 Pensées에서 다음과 같이 信仰의 方法을 세가지로 나누어 言及하고 있다.

“Il y a trois moyens de croire: la raison, la coutume, l'inspiration. La religion chrétienne, qui seule a la raison, n'admet pas pour ses vrais enfants ceux qui croient sans inspiration; Ce n'est pas qu'elle exclue la raison et la coutume, au contraire; mais il faut ouvrir son esprit aux preuves, s'y confirmer par la coutume, mais s'offrir par les humiliations aux inspirations, qui seuls peuvent faire le vrai et salutaire effet: Ne evacuetur crux Christi”<sup>30)</sup>

《Mémoires》의 다음 一節은 重要한 內容을 가지고 있다.

“Dieu d'Abraham, Dieu d'Isaac, Dieu de Jacob, non des philosophes et des savants.”<sup>31)</sup>

舊約에 있어서는 몸소 族長들을 神이 引導했지만 그 神은 實로 存在하는 神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現實에 있어서 사람의 魂을 밀바닥으로 움직이게 하는 神이고 哲學者나 科學者들이 自己의 體系를 完成하기 爲해서 생각해내는 自然科學的인 神이 아니라 神의 편에서 自己를 啓示하는 神이다. 啓示는 人間의 魂의 空白狀態, 可能性을 一舉에 充足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啓示에 의한 靈魂의 轉換의 特色은 人間存在의 構造가

30) Ibid., 482, p. 1223

완전히 充足되는 것이다. Pascal이 體驗한 말을 引用해 보면 「確實, 確實, 直感, 歡喜, 平和」 「人間的 靈魂의 偉大性」 「歡喜, 歡喜, 歡喜, 歡喜의 눈물」 등 Mémorial에 나오는 이 말들이 그것을 立證하고 있다. Pascal의 人間存在의 空虛性, 悲慘性의 分析은 이처럼 充實하고 偉大한 啓示를 背景으로해서 비로서 充分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單純히 哲學者의 觀念的인 思辯이 아니고 이처럼 偉大한 體驗의 바탕위에 그의 人間分析이 行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哲學이 미치지 못하는 實在의 領域 오히려 神學的 現實이다.

Pascal은 神學이란 모든 眞理의 中心이라고 보면서 神學이라고 하는 特殊한 啓示事實을 取扱하는 學問이 普遍的 眞理를 取扱하는 哲學을 理解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모든 觀念은 主體의 具體的인 體驗으로 理解할 수 있다.

回心은 이와같은 普遍的 意義를 가지는 一個人의 具體的인 體驗 즉 個人的 現實이 아니면 안된다. Pensées에서 言及되고 있는 結果의 理由 (raison des effets) 의 辯證法은 이러한 眞理위에 서 있는 것이다. 第二의 重要한 點은 이러한 回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實在의 一人格을 中心으로 한다는 데 있다. 아무리 深遠한 體驗이라 하더라도 一方의이고 主觀的인 感情의 昂揚으로서는 實로 具體的인 普遍性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特殊한 人格, 그 責任에 있어서 神의 眞理를 받아드리는 人格的 體驗이 되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自己의 罪惡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自覺하는데 있다. 다음 句節은 예수 그리스도에 對한 Pascal의 回心《Mémorial》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Je m'en suis séparé, Je l'ai fui, renoncé, crucifié. ”<sup>31)</sup>

이 具體的인 人格과의 相面에서 人間은 처음으로 自己의 참된 모습을 自覺케 되는 것이다. 다음은 Pensées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Non seulement nous ne connaissons Dieu que par Jésus-Christ, mais nous ne nous connaissons nous-mêmes que par Jésus-Christ. Nous ne connaissons la vie, la mort, que par Jésus-Christ. Hors de Jésus-Christ nous ne savons ce que c'est ni que notre vie, ni que notre mort, ni que Dieu, ni que nous-mêmes.

Ainsi, sans l'écriture, qui n'a que Jésus-Christ pour objet, nous ne connaissons rien, et ne voyons qu'obscurité et confusion dans la nature de Dieu et dans la propre nature. ”<sup>32)</sup>

人間存在의 깊은 罪惡意識은 거기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의 邂逅에 의해서 人間을 自己가 積極的으로 神의 아들을 十字架에 못박히게 한 罪人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人間存在의 構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드림으로 인해서 偉大하게 된다. 그것이 人

31) Ibid., Opuscules., P. 554

32) Ibid., P. 554

33) Ibid., 729, P. 1310

間의 魂의 偉大한 모습이다. “grandeur de l'âme humaine.”<sup>34)</sup> 그러나 그것은 人間 그 自體가 偉大한 것은 아니다. 그 偉大한 人格을 받아드리는 것이 偉大한 것이다. 그것은 自己의 悲慘한 意識을 깨닫고 罪惡意識까지 到達하는 偉大한 過程인 것이다. 그의 有名한 人間存在의 辯證法的인 構造도 그리스도의 人格的 關係속에서 實로 現實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Pascal에게 別途로 抽象的인 人間存在의 構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人格的 關係를 떠나서는 人間存在의 構造는 崩壞하고야 판다.

“En lui et par lui nous connaissons donc Dieu. Hors de là et sans l'Écriture, sans le péché originel, sans Médiateur nécessaire promis et arrivé, on ne peut prouver absolument Dieu, ni enseigner ni bonne doctrine ni bonne morale. Mais par Jésus-Christ et en Jésus-Christ, on prouve Dieu, et on enseigne la morale et la doctrine. Jésus-Christ est donc le véritable et la doctrine. Jésus-Christ est donc le véritable Dieu des hommes.”<sup>35)</sup>

그러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같이 人間의 靈魂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 사랑의 人格者이기 때문이다. 人間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回心하는 것은 人間이 主體的으로 그것을 實踐하기 때문인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人間으로 하여금 心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中心으로 하는 人間存在의 構造는 사랑의 構造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의 사랑이 人間으로 하여금 그 心情을 움직이도록 밝혀낸 文字는 예수의 秘義인 것이다. “mystère de Jésus”<sup>36)</sup>

이 하나의 斷章에서 Pascal은 人間을 사랑하므로써 도리어 人間에게 苦痛을 받고 죽임에 이르는 예수를 따사롭게 描寫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神의 사랑이 人間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可能하게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Tu ne me chercherais pas, si tu ne me possédais”<sup>37)</sup>

그리스도의 사랑은 恩寵으로서 사람에게 파고들고 神의 探求와 回心도 그 사랑에 의해서 비로서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Pascal은 이 恩寵이 人間의 貪慾을 克服해서 사랑의 原理에 轉換하게 되는 過程을 《Les Provinciales》<sup>18)</sup>에서 재치있는 文體로 描寫하고 있다. Pascal에 있어서의 사랑의 利害的 要素와 人格的 要素는 그 어느쪽이 本質的인 것인가 하는 問題는 以上으로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利害的 要素는 人格的 關係의 墮落한 모습과 같은 것으로 利害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마음의 空虛를 채워줌으로서 스스로가 人格的 사랑으로 轉換될 수 있는 것이다. Pascal의 《Pensées》의 過程을 通해서 考察할때 上述한 바와같이 生覺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解決해야 할

34) Ibid., Opuscules, P. 554

35) Ibid., 730, P. 1310

36) Ibid., 736, P. 1312

37) Ibid., 737, P. 1315

問題가 많고 앞으로 더욱 研究해야 할 問題點이 許多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 Ⅳ. 사랑의 神秘的 共同生命의 秩序

人間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回心할때 그리스도를 中心으로 하는 共同體인 敎會의 一員이 된다. 敎會에 一員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生命에 參與하는 것이 된다.

“Être membre, est n'avoir de vie, d'être et de mouvement que par l'esprit du corps et pour le corps……/……/Mais, en aimant le corps, il s'aime soi-même, parce qu'il n'a d'être qu'en lui, par lui et pour lui : Qui adhaeret Deo unus spiritus est…/On s'aime, parce qu'on est membre de Jésus-Christ. On aime Jésus-Christ, parce qu'il est le corps dont on est membre. Tout est un, l'un est en l'autre, comme les trois personnes.”<sup>38)</sup>

上記 句節은 그리스도를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共同生命體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自己를 사랑한다는 것은 全體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全體를 사랑한다는 것은 自己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三位一體의 神은 이와같은 存在이기 때문인 것이다. 敎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生命이 주어질때 人間은 實로 偉大하게 된다. 人間은 眞實로 偉大한 神의 사랑을 받아서 神의 偉大에 參與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關係는 俗世에서는 究極적으로 完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慾의 原理가 있어서 不斷히 人間을 罪의 世界로 誘惑하기 때문이다. 人間은 죽음을 거쳐 肉의 衣裳을 벗을때 實로 神과 偕한 存在가 된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에서 사랑의 神秘的 共同生命의 秩序에의 偉大한 轉換이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 Pascal은 西紀1651年 9日 24日付 Pèrier 夫婦에게 보낸 書信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Nous savons que la vie, et la vie des Chrétiens, est un sacrifice perpétuel qui ne peut être achevé que par la mort, nous savons que Jésus-Christ, entrant au monde, s'est considéré et s'est offert à Dieu comme un holocauste et une Véritable victime; que sa naissance, sa vie, sa mort, sa résurrection, son ascension, et sa présence dans l'Eucharistie, sa séance éternelle à la dextre n'est qu'un seul et unique sacrifice : nous savons que ce qui est arrivé en Jésus-Christ doit arriver en tous ses membres.”<sup>39)</sup>

우리들은 또한 스페르타사람의 죽음과 기독교신자의 죽음을 비교한 아름다운 斷章481(714)를 알고있다. 要約해서 말하면 他人에 의해서 어떠한 죽음, 그 죽음에 의해서 自

38) Ibid., 710, P. 1305—1306

39) Ibid., A monsieur et madame pèrier, P. 492

己의 狐獨에서 脫皮하는 것을 立證하는 勝利의 죽음이 描寫되고 있다. 이 죽임에 의해서 人間은 利己愛에서 벗어나 純潔한 化身이 되고 사랑에 의해서 完成이 되는 것이다. 卽 人間은 神에 의해서 存在할때 眞實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斷章485 (712) 를 引用해 보면 :

“La vraie et unique vertu est donc de se haïr (car on est haïssable par sa concupiscence), et de chercher un être véritablement aimable, pour l'aimer. Mais, comme nous ne pouvons aimer ce qui est hors de nous, il faut aimer un être qui soit en nous, et qui ne soit pas nous, et cela est vrai d'un chacun de tous les hommes, Or il n'y a que l'Être universel qui soit tel. Le royaume de Dieu est en nous : le bien universel est en nous, est nous-même, et n'est pas nous. ”<sup>40)</sup>

이것은 教會에 對한 그리스도의 神秘的 共同生命 關係를 表現한 句節이다. 世上의 自己主張과 憎惡속에서, 本質적으로 그 成員이 狐獨한 共同體에서 神의 犠牲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참된 共同生命의 關係로 止揚하는 것이 Pascal에 있어서의 사랑의 發展의 體系이며 同時에 人間存在의 理解라고 生覺된다.

## V. 結 論

Renaissance에 의해서 새롭게 自覺된 「人間」은 自己完成을 目標로해서 無限히 發展했다. Pascal은 人間存在의 完成을 追求했지만 近代의 人間像을 深刻히 批判하여 基督教의 사랑에 의한 再構成을 試圖했다. 이것은 그리스도敎의 思想이 近代精神에 對해서 試圖해 본 가장 큰 批判이며 抗議였다. 더욱이 Pascal의 사랑의 秩序는 近代의 人間像이 生命을 肯定하는 바탕위에서 있는데 對해서 恒常 죽임을 契機로해서 發展하는 體系였다. 죽임의 滅亡을 避할려고 하는 人間들이 닥아오는 죽임앞에 戰慄하면서 그 思考를 外面하며 構成이 되는 慰戲와 崩壞하게 될 實在的인 죽임 이것이야말로 探求의 端緒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에 의하여 일어나는 人間存在의 內的轉換, 回心, 榮光의 秩序의 門을 열고 사랑을 完成하는 勝利의 죽임. 그러나 이 죽임은 生의 참된 深奧, 사랑의 發展과 더불어 眞~그 意味는 深長해질 것이다. 戰慄의 죽임에서 勝利의 죽임으로 또한 죽임의 恐怖에서 죽임의 讚美로 進展될 것이다. 죽임의 解決이야말로 生의 참된 解決일 것이다.

Pascal의 思想의 참뜻도 바로 이 點을 強調하고 있다고 보겠다. Pascal에 있어서의 사랑의 秩序는 證明성과 象徵性, 德과 愛, 現實과 實在, 完成과 回心, 生의 肯定과 죽임

40) Ibid., 712, P. 1306

에 의한 復活等. 根本問題의 處理에 關해서 Descartes와는 달리 奧妙한 立體的인 解決을 試圖했다고 볼 수 있겠다.

<Bibliographie>

- 1) B. Pascal: Oeuvres Complètes de Pascal, Gallimard, 1954
- 2) Louis Lafuma: Recherches pascaliennes, Delmas, 1949
- 3) Jean Mesnard: Pascal, l'homme et l'oeuvre, Boivin, 1951
- 4) Louis Lafuma: Controverses pascaliennes, Éd. du Luxembourg, 1952
- 5) Chinard: En lisant Pascal, Lausanne, 1948
- 6) G. Brunet: le Pari de Pascal, Desclée de Brouwer, 1956
- 7) 안병욱: 世界大思想全集 II (파스칼), 知文閣, 1964